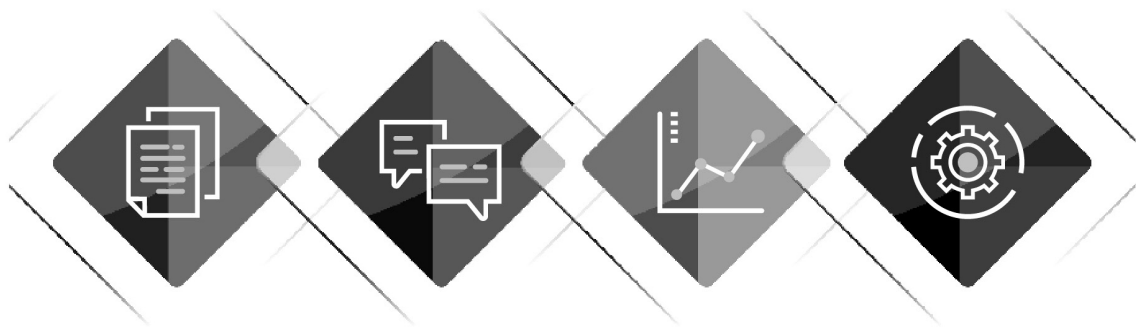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일시 2019. 4. 19.(금) 14:00~16:00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주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부제 : 도서관과 함께 포용 사회로)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개 요







- 일 시 2019. 4. 19.(금), 14:00~16:00
- 장 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 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부제 : 도서관과 함께 포용 사회로)
- 주 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주 관 문화체육관광부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3:30~14:00	30'	등 록	자료집 배포 등
14:00~14:05	5'	개회사 및 인사말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14:05~14:10	5'	축 사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14:10~14:30	20'	발 제 / 사람에 대한 포용성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14:30~14:50	20'	발 제 / 공간의 혁신성	윤택용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부사장
14:50~15:10	20'	발 제 / 정보의 민주성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기획처장
15:10~15:20	10'	휴 식	
15:20~16:00	40'	종합토론	* 좌장 /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 * 토론 •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 최준혁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 정현태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장
16:00~		폐 회	

목 차

-  **발제 1 / 사람에 대한 포용성**
도서관,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 1
-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색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  **발제 2 / 공간의 혁신성**
경계의 모호성(Blurred Boundary) 17
- 프로그램 상호간 경계의 모호성을 통한 공간의 창발적 진화
윤택용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부사장
-  **발제 3 / 정보의 민주성**
문화적 권리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비전 27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기획처장
-  **토론 1 / 사람에 대한 포용성**
‘사람에 대한 포용성’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생각 45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  **토론 2 / 공간의 혁신성**
도서관의 미래지향점과 방향성 51
최준혁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  **토론 3 / 정보의 민주성**
포용사회 실천과제로서 도서관의 민주성 57
정현태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장

사람에 대한 포용성

도서관,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
-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색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도서관,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

-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색 -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

1. 들어가며

제3차 발전종합계획을 보고 반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언어(wording)가 달라졌다,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와닿는 내용이라 이용자와도 그대로 공유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삶의 대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여러 도서관들의 시도와 많은 사람의 간절함과 수고가 담긴 발전계획이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이라고 비전을 선언한 만큼 실제로 삶이 달라져야 성과를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계획을 세운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실행해나가는 앞으로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시점(視點)과 위상의 변화

개인적으로도 발전계획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 시점의 변화와 위상의 변화입니다.

첫째, 계획을 출발하는 시선이 ‘도서관’에서 ‘우리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장서수를 몇 만 권 늘리고 도서관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주목하기보다는 도

서관활동이 구체적인 개인의 삶과 삶터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사람중심’의 도서관으로 한 걸음 내딛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부적인 목표와 과제를 나열하지 않고 큰 틀의 비전과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발전계획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발전계획으로 제시된 비전과 핵심가치를 각자 속한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오롯이 지자체와 현장 도서관의 몫으로 주어진 셈입니다. 해마다 지자체별, 도서관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온 과정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의 분권, 지방화 흐름에 걸맞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힘을 키우는’, ‘적극적 정보복지’, ‘분권형 운영체제’,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미래를 여는 혁신’처럼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담은 선명한 방향은 각 지자체와 도서관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덧붙여, 발전계획이 한결 간결하고 명료해진 것도 위상의 변화에 따른 효과로 보입니다. (단순히 분량만 비교해도 1차 계획 202쪽, 2차 계획 149쪽, 3차 계획 102쪽으로 줄었습니다.)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이 늘 곁에 두고 펼쳐보면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길을 찾는 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 비전과 가치에 담긴 개념에 대한 논의 필요

발전계획의 발표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면, 계획에 담긴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구현해나갈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나가야 할 텐데요. 시선을 ‘삶’에 두고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한다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비전과 핵심가치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3가지 핵심가치를 축으로 진행될 오늘 포럼도 그런 맥락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세 가지 핵심가치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

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어느 하나를 빼고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층위와 방향에서 도서관이 진짜 삶에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2. 포용의 의미

1) 포용국가

3차 발전계획은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제1의 핵심가치로 제시하였습니다. 포용이란 말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혁신적 포용’이나 ‘포용적 성장’처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수식을 덧붙였습니다.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오해와 비판을 막기 위해, 포용국가의 특징으로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포용국가란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기반을 다지고 ‘생산적 복지’로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실업, 노동, 교육, 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정책을 발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용에 대한 강조는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배제적(exclusive) 분배에 길들여진 프레임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니 일시적, 잔여적(residual)으로 분배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포용적(inclusive) 성장을 통해 근본적으로 모두의 역량을 키우자는 제안입니다. 분배가 비용을 늘리고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았던 ‘선성장 후분배’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2) 도서관에서 포용성?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한 포용국가의 의미를 채용해보면,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라는 핵심가치는 단기적으로 이

용률을 높이기보다 정보와 지적활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시민의 힘을 키워나가자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용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이나 장서수, 이용률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배제와 격차를 해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역량을 키워가는 데 기여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습니다. ‘시혜적’ 관점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몇 가지 특성으로 서비스 타깃 대상을 구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 보이지 않는 문턱

동료와 지인들에게 ‘포용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뭐가 떠오르느냐고 물으니 대부분 소외계층, 정보격차, 아웃리치 서비스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도서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발전계획은 핵심과제 ‘3.1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을 통해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고 특수 환경의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아웃리치의 확대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적극적’이라는 수식어를 더 강조하고 싶은 까닭은 도서관은 이미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공공성을 선언한 곳이지만, 문을 열고 기다리기만 해서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201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의 ‘무형식학습 참여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인쇄매체를 통한 학습 경험’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했습니다.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 월 가구소득, 지역, 6가지 변수 가운데 가장 크게 격차를 일으키는 요인은 학력과 소득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관 등을 방문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운 적이 있는’ 경험은 중졸이하 4.1%, 고졸 14.9%, 대졸 이상 30.6%로 학력과 반비례하고, ‘인쇄매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 경험도 13.7%, 35.1%, 54.1%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현실에 문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학력’이라는 변수가 도서관에서 정보격차를 이야기할 때 열

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졌던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자료였습니다.

■ 시혜, 세분화(segmentation)의 한계를 넘어

그동안 도서관에서 타깃 대상을 정의해 온 고정관념은 벗어버리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장애인(장애 유형에 따라 세분한다고 하더라도), 노인, 다문화 가정 등으로 특정할 때 자칫 이용자들의 요구를 넘겨짚는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용자를 ‘대상화’하여 시혜적 관점에서 서비스를 다루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격차를 강조한 서비스나 사업은 낙인이나 또 다른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다양성이라는 말로 담기에는 모자랄 만큼 하루하루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가 ‘지수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요구도 상황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요소를 고려할 만큼 대상의 범주를 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발전계획이 추진과제로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를 제시한 것은 기대가 되지만, ‘계층별, 연령별, 관심사별 등’ 다방면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유연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포용의 범위, 접근성을 넘어 정보활동 과정까지

시혜나 세분화의 한계를 넘어설 가장 간단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일방향의’ 서비스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용의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입니다. 그럴 때 지속가능한 포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을 세분화하여 타깃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이용자의 주체적인 정보활동을 촉진하고, 매개하고, 북돋우는 방향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일자리, 경제활동, 건강, 금융, 생활문화, 환경 같은 생활정보에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관에 관련 정보자료를 비치하고 샵터 구석구석에 도서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전략과 실천도 필요합니다.

3. 포용성의 실현을 위한 변화

1) 도서관의 변화된 역할 요구

지식과 정보에서 배제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구나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겠지요. 주어진 목표와 교재를 활용하는 학교 교육과 달리 도서관에서는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독서와 정보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고 토론하는 다양한 모임들 역시 자발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또한 도서관은 다른 어떤 기관이나 공간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완전한 일상성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배움과 삶이 오롯이 하나로 연결되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보활동을 경험하게 된다면, 배제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가 오히려 도서관 활동의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발성은 자연스레 다양성으로 이어집니다. 차이에서 비롯되는 지식과 정보의 확장은 예상하지 못한, 빅뱅 수준의 장면을 구현하곤 합니다. 경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책을 놓고 둘러앉아 돌아가며 읽는 낭독회나 독서회에서 날마다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도서관의 고유한 특징과 가능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도서관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공’에서 ‘상호작용’으로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정보활동의 모든 과정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은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 개개인이 자신의 요구를 (잠재된 요구까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나아가 또 다른 요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도서관들이 정보자료의 수집부터 정리, 배가, 이용, 피드백까지 모든 과정에 이용자들이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읽은 책의 한 구절을 발췌하여 공유하기도 하고 난감한 분류나 경험이 필요한 레퍼런스에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구입할 책을 고르거나 주제 컬렉션을 엮는데에도 이용자들의 경험과 정보가 공유되는 채널을 마련할 수 있고,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이용규정을 만들고 조정하는 과정에도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서 포용성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 줌인(zoom-in) : 일상의 ‘삶’ 속으로

‘이용자’라는 뭉뚱그린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존재로서의 구체적인 개인, 단체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라는 추상적 이미지가 아니라,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온도, 냄새, 진동까지 느낄 수 있는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뭉뚱한 연장은 섬세하게 버려야 하겠지요.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와 활동이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일상으로 꾸준히 이어지면서 관계와 역동이 작동하는 ‘과정’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는 그럴 때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대량생산 시대가 가고, ‘질’의 시대를 넘어 ‘온리원(only one)’의 경험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요구를 따로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층위의 상호작용에 힘을 쏟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IT 기술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의를 위한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도서관 정보서비스 과정의 상호작용에 IT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계나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robot-proof, technology-proof) 사람의 역할에 집중할 때 결국 삶터, 지역사회에 공공도서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 지식의 동사화

하루하루 일상에서 더 이상 교과서나 백과사전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학교 졸업장으로 문제해결력의 레벨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정답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실마리를 찾아 끊임없이 연결된 다양한 매체와 출처의 자료들을 탐색하면서 경험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감을 주고받으며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서가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지식이 ‘동사’가 되어 삶의 과정으로 쑥 물어들어온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정보요구를 읽어내는 것도 도서관의 중요한 몫입니다. 민원으로 제기된 요구에 응대하는 것만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처 인식되지 않은 잠재적 요구를 발견하여 컬렉션으로 엮고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말을 걸 때, 도서관의 ‘우연한 발견(serendipity)’이 가장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질문을 발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음표는 지적활동에 시동을 거는 열쇠입니다. 왜, 어떻게 그리되었는지 맥락을 읽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소통이 시작되는 관심의 표현이고 낯선 시선, 비판적 사유, 또 다른 상상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미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 너무 당연하게 여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낯선 시선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도 도서관이 시민의 힘을 북돋울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방법입니다.

■ 경계를 넘어

아직 도서관을 경험하지 못한 잠재 이용자들을 발굴하고 정보활동을 촉진, 매개하여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어디서나 도서관을 만나고 도서관으로 통할 수 있도록 길을 내야 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복지기관 등 배제와 격차를 일으키는 문제에 관련된 기관, 단체들과 다양한 층위로 연계,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자료와 레퍼런스를 제공해줄 기관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자원을 내버려둔 채 모든 것을 도서관 안에서 채우려 한다면 참으로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찾아가고 초대하는 양방향의 연결 채널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공공도서관은 환경, 인권, 문화,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기관, 단체들의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는 포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정보요구와 학습동기를 갖게 된 사람들이 그 기관들에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실행하는 플랫폼 역할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역단체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관된 컬렉션을 만들어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쌓이는 상호작용의 기록은 많은 사람의 실제 삶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역사회의 지적활동을 불러일으키는 도서관의 역할이자 전문성입니다.

2) 변화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

■ 현장 전문성

그런 전문성은 자격증이나 학위만으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일상은 하루하루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읽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일, 좋은 질문을 발견하는 일은 현장에서 뇌와 심장과 손발이 단단하고 섬세하게 단

련되어야 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자료’와 ‘사람’을 만나면서 커커이 쌓이는 경험, 노하우, 암묵지 같은 현장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강의나 워크숍 같은 계속교육의 기회도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자료와 사람을 만나고 엮는 과정이 오롯이 도서관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학습과정이자 정보자원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간절한 바람이지만 솔직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일반열람실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그저 지키기만 하는 데에도 인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필요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선정하려면 수많은 자료를 꾸준히 읽고 머리를 맞대고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텍스트를 읽는 시간은 커녕, 함께 회의할 시간조차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의 과감한 혁신

전문성을 쌓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조직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업무에 쫓기고 실적이 되는 프로그램에 매달리느라 사서들이 정작 자료를 만지고 이용자를 만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지역사회의 정보요구를 읽어내고 새로운 대안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기대하지만, 도서관 문 밖으로 나설 시간은 좀처럼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의 실마리를 찾는 경험은 동시에 사서들에게 정보서비스 역량을 쌓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경험들이 ‘업무’로 인정되어 충분히 에너지를 쏟고 품을 들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확보되기를 기대합니다.

■ 유연하고 막강한, 납작한 조직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는 한 사람의 직원을 통해 도서관 전체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만큼 대안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레퍼런스 서비스를 진행하고 컬렉션을 만들려면 도서관의 자원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정보문제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대안의 폭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어서 도움이 될 자료도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성과에 매달리는 쳇바퀴를 멈추려면 무엇보다 조직과 조직문화가 달라져야 합니다. 협력과 네트워킹이 업무로 인정되고 성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료의 수집, 정리, 제공, 시설관리까지 기능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업무가 설계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지적활동을 촉진하는 안내자이자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까지 할 수 있으려면, 이용자를 대면하는 실무자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납작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위계적인 결재 절차와 소모적인 문서작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분위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해진 틀에 따라 속도를 높이는 데에만 매달리는 분업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 생각, 역할을 가진 사서들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생각하는 데 몰입하여 영감을 주고받으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조직문화를 기대합니다.

■ 평가에 대한 창의적인 상상

정량적인 평가에 따르면 포용은 어렵습니다. 장서 수, 참가자 수 같은 통계 숫자보다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시민들이 부여하는 가치에 집중하려면 새로운 관점의 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일한 기준으로 세분화된 대상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행 결과를 측정하기가 쉽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식이라면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지만 절실하게 요구되는 평가의 방식과 체계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노력도 기대합니다.

4. 나오며 - 공공성에 대한 신뢰 회복하기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흐름은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방식과 가치를 크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의 연장, 필요노동시간 단축,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개인이 삶을 영위해가는 관계망이자 사회구성의 단위인 가족, 세대의 정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건강, 성장, 행복 등 삶의 질을 가늠하는 가치의 개념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고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미세먼지로 체감하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기본소득, 저성장 기조와 양극화... 이 모든 것을 함께 풀어가야 할 '지역사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포용성의 실현, 시민의 몫

'인식'이 인프라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눈앞의 이해와 충돌하는 선택도 감수하면서 기여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힘이 커져야 합니다.

참여, 거버넌스, 분권, 평화협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의 시대정신은 정부의 정책 의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 힘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포용성 역시 도서관의 서비스만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의 몫입니다.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폭넓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경청 받고 공명하는 경험, 존중받고 신뢰받는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모두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는 몫입니다. 미루기에는 너무 절실한 시대의 요구와 놓치기에는 너무 가까운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공간이 독서실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방문자수를 늘리느라 인기 프로그램에 매달려 이용자들이 쇼핑하듯 문화프로그램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레퍼런스 서비스는 먼 나라 이야기이고 행정 업무에 밀려 정작 이용자를 만나거나 자료를 만지는 시간도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좀처럼 반향이 없는 해묵은 메아리입니다.

■ 인식을 바꾸는 경험 필요

도서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제한적입니다. 우리 모두 도서관에 대한 경험이 그만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른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으로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효과적인 전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책으로 둘러싸인 공공도서관의 열람실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론장, 변화를 모색하는 활동과 관계망의 플랫폼,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도서관의 비전과 목표를 선언한 제3차 발전계획은 변화를 모색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시설과 장서를 운영하고 보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시민들의 안내자이자 조력자로 기여할 방안을 찾는 데 크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과정도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큰 틀의 방향을 세웠으니 꾸준히 살피면서 항로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문화가 조성된다면 어떤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공공성을 삶으로 살아내는 도서관문화를 기대한다. 도서관문화가 삶터와 일상에 스며들어 이용자들이 수동적인 정보의 소비자나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체로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내러티브를 엮어갈 힘을 갖길 바란다. 그럴 때 도서관은 민주적인 시민들이 태어나는 제3의 공간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 『꿈꿀권리』 박영숙. 알마. 2014

공간의 혁신성

경계의 모호성(Blurred Boundary)

- 프로그램 상호간 경계의 모호성을 통한 공간의 창발적 진화

윤택용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부사장

경계의 모호성(Blurred Boundary)

- 프로그램 상호간 경계의 모호성을 통한 공간의 창발적 진화 -

윤택용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부사장



울산시립도서관 중앙로비 투시도

사회적 공유공간, 열린 도서관

도서관은 만남의 공간이다. 수많은 책과 자료를 통한 간접적인 만남부터, 지적 사유를 통한 자아와의 만남, 그리고 도시 속 공공의 장소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행위들과 조우하는 순간들이 그 안에 녹아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단편적 기능을 수용한 건물 한 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에 '장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담아내는 ‘공유공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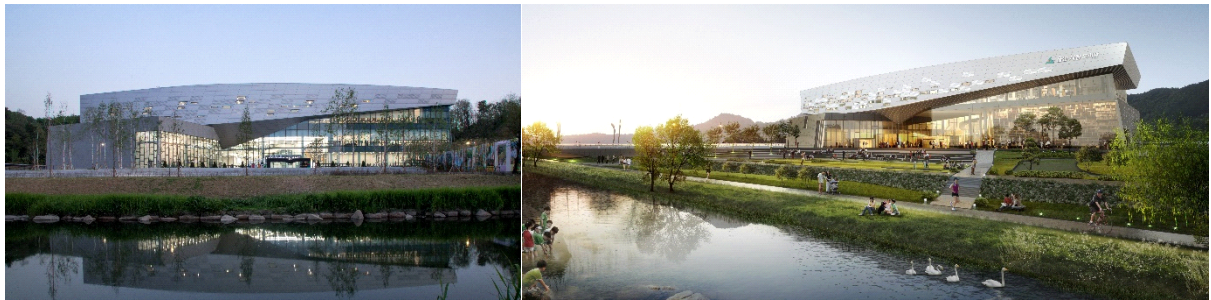
울산시립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능이 공간의 응축과 확산을 통해 펼쳐지는,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일상의 ‘자연스러움’ 속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 다양한 사용자들의 상상력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즐거운 체험의 장소를 제공한다. 장소의 제약이 없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가능한 도서관의 새로운 공간들은 단위공간들의 재해석과 새로운 조합의 시도를 통해 발현된다.

땅의 해석, 도시와의 관계 속에 정의되는 장소의 가능성



울산 시민들에게 기존 대지는 위생처리장 시설로 인한 기피의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는 장소였다. 그로 인해 기존의 도시조직과 계획대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했으며, 그 사이를 지나는 여천천 또한 도시와 계획대지를 단절시키는 시각적, 물리적 경계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의 도시와 단절되고 접근성이 취약한 이 같은 공간에 도서관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 도시와의 연결과 유대감 형성에 주목

하여 도시 내 ‘새로운 장소’를 만들고자 했다. 즉, 주어진 프로그램의 일차적 기능만을 수용하는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서 기존 도시 조직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장소로서, 장소 자체가 ‘울산시 중심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과 가치를 충실히 담아내어 지속가능한 도시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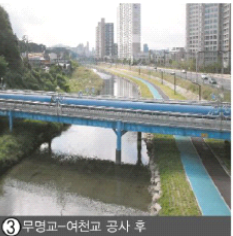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공공장소’ 만들기



다양한 이벤트 및 커뮤니티가 있는 공간



여천천 생태하천 사업 전/후 모습



프로젝트 초기, 대지 주변 조사를 하던 시점에 울산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340억원을 들여 추진했던 여천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상여천천 약 700미터 구간의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계

획 대지 북측에 면한 여천천을 지금까지 기존 도시구조와 계획대지를 단절시키던 요소에서 벗어나 울산시립도서관이 들어설 대지가 주변의 도시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로서 바라볼 수 있는 단서가 되었으며, 주어진 계획대지의 경계를 재해석함으로써, 기존 도시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자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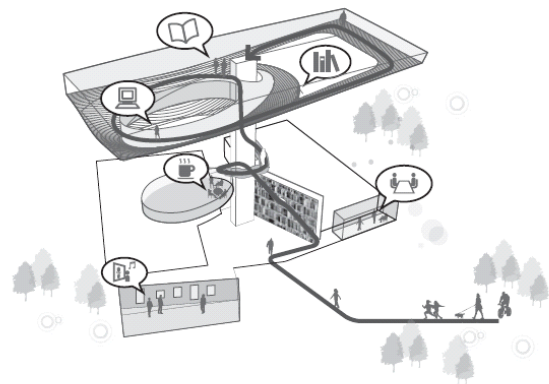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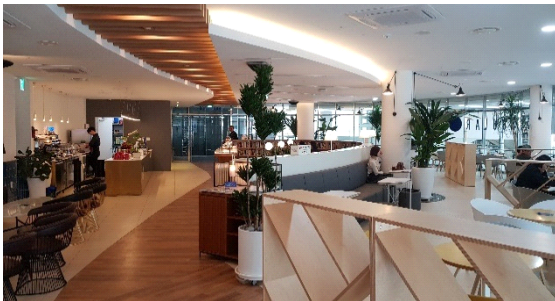
위생처리장으로 인한 장소의 이질감과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와 맞닿은 여천천의 수변공간을 공원화 하고, 그 안측 켜에 도서관의 유연한 입면이 여천천의 흐름을 따라 풍경처럼 놓이도록 했으며, 울산 고유의 지역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입면계획으로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했다. 또한 대지의 주변 환경과 흔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절적 행위의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공장소를 조성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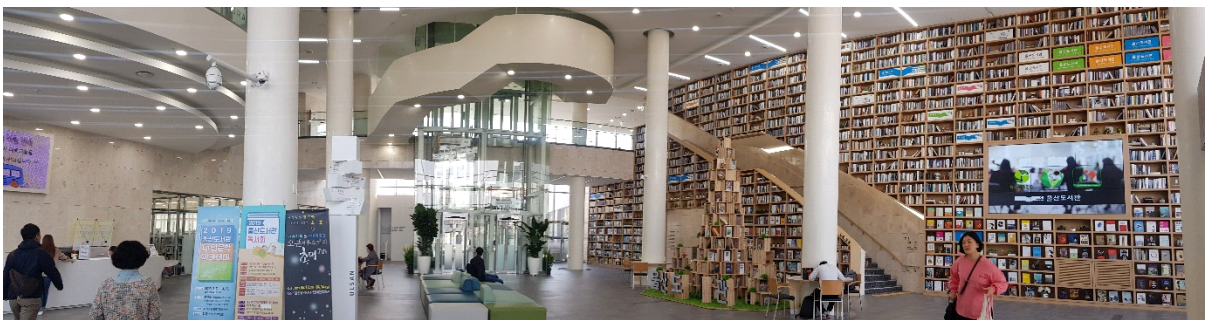
‘일상을 향유하는 장소’ 만들기 - 걷고 싶은 길, 머물고 싶은 장소

계획대지와 도시의 경계에 놓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2차원적 공간으로서 도시가로환경의 경계를 여천천과 산책로, 그리고 도서관 앞 외부공간을 통해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놓음으로써, 길을 따라 펼쳐진 다채로운 풍경과 그 위를 거닐며 마주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확장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지고 확장된 경계를 도서관 내부로 적극 끌어들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연결시킴으로써, 울산시민의 일상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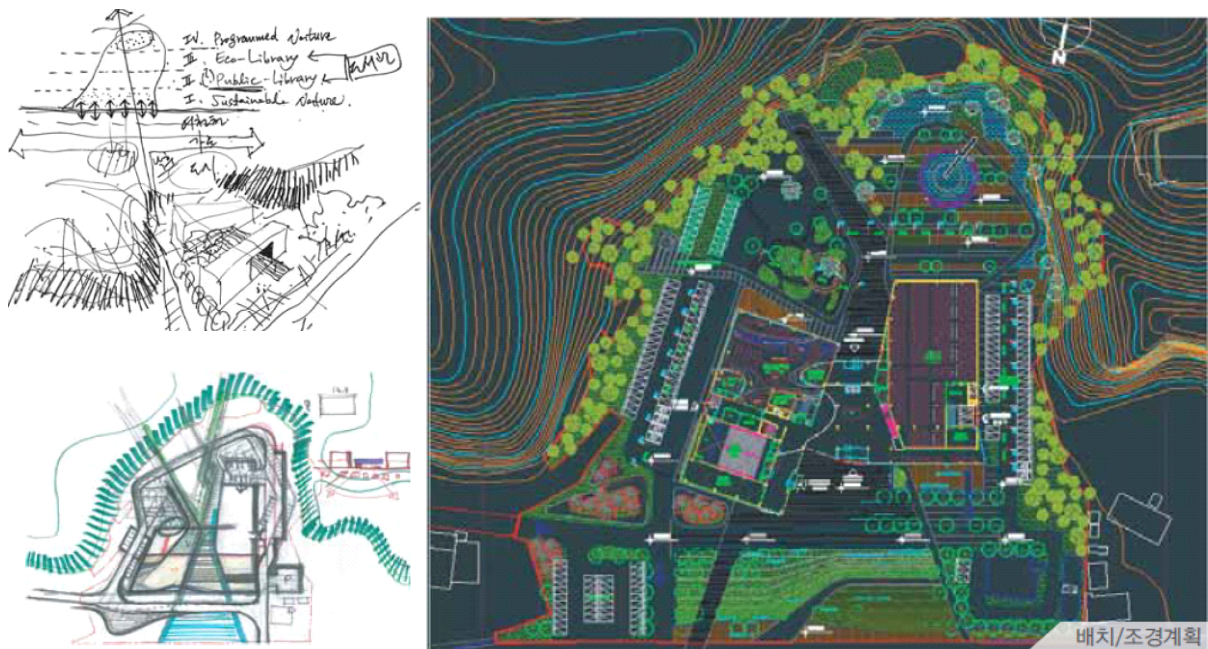
도서관 로비에 면한 2층 북카페



길의 확장성과 유연성 ▶ 울산시립도서관에서의 ‘길’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로 환경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도시 흐름을 보다 효율적이며 유쾌하게 연결시켜 주는 혼합체로서 정의된다. 특히 1층 로비는 확장된 길의 개념으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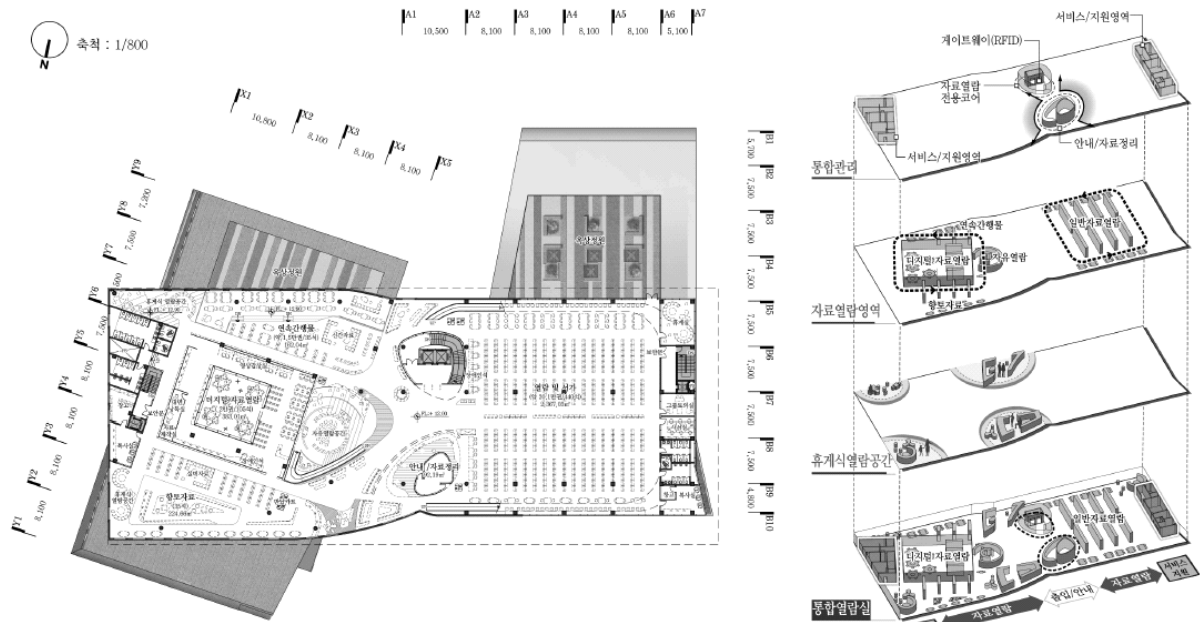
되었으며, 이용자의 발길이 계획된 공간으로 향하기도 하고 우연히 조우한 공간에서 머물기도 한다.

그 공간은 이용자가 마치 이끌려가듯이 도착하지만, 형태로부터 다가오는 인식에 의해 이끌린 공간이기도 하다. 그 곳에서 조우하는 뜻밖의 “*매스들의 놀이(play of masses)*”와 그로 인한 빛과 공간의 조화를 경험하며 그 안에 있는 일반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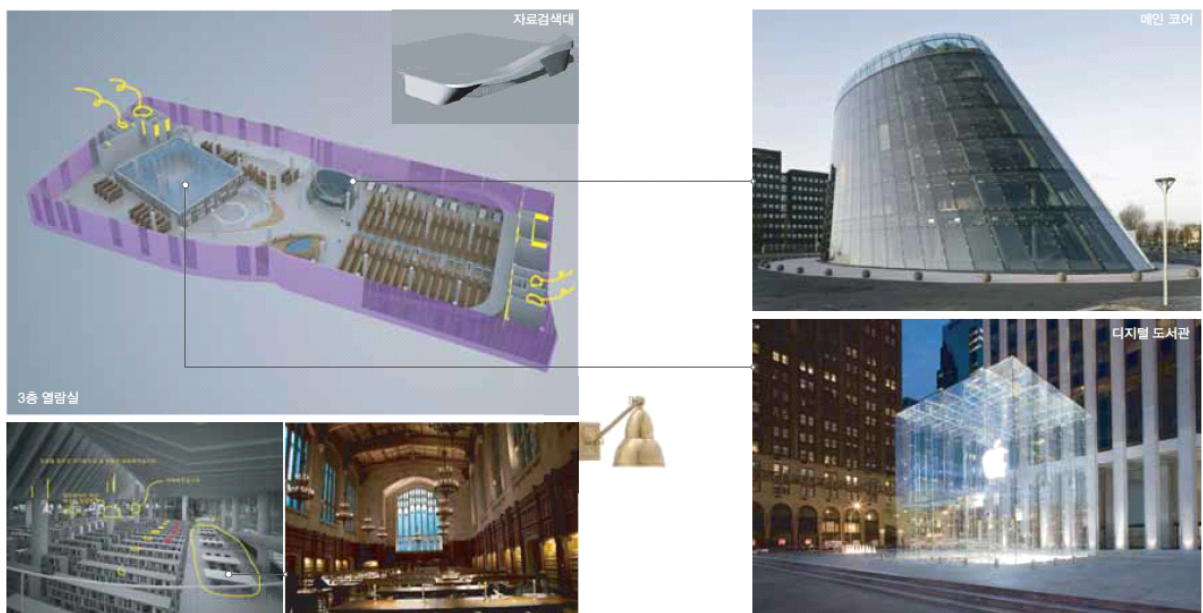


울산시립도서관은 문화와 정보 그리고 소통이 어우러진 복합 커뮤니티 장소로서, 남측의 풍부한 생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북측 수변공간을 이어주는 매개공간(로비)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외부 공간과 프로그램이 연결되었다.

경계의 모호성을 통한 공간의 창발적 진화 - 통합 열람실



울산시립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3층의 통합 열람실이다. 현상공모 당시 지침에서 주어진 단위공간들을 하나의 거대한 공간에 담고 각각의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풀어 놓음으로써, 사용자들은 책을 소재로 한 도시적 풍경을 마주하고 비로소 저마다 자유로운 모습으로 책과 정보 그리고 공간을 즐기게 되었다.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발제
3

정보의 민주성

문화적 권리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비전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기획처장

문화적 권리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비전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새문화정책준비단 단장

1. 들어가는 말

주지하다시피, 도서관은 더 이상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장소만이 아니다.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화적 지식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공간이다. 근대적 의미에서 도서관이 책을 구입하고, 대출하는 역할에 한정되었다면, 동시대 도서관은 책을 구입하고 대출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의 총체를 지원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접근의 권리들을 가능한 많이 수용해야하고, 시민들의 여가활동의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음악을 결합하고, 교양 교육을 받으며, 쉼과 휴식을 곁들이는 프로그램들은 도서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원들이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의 관점에서 도서관을 바라보는 것은 도서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향유의 권리”, “접근의 권리”, “참여의 권리”, “표현의 권리”이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만들고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한계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적 교육과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에 가깝게 가까이 있어야 하고, 장서를 보관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장서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발제는 문화적 권리의 관점에서 도서관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 지 함께 고민해보는 화두를 던지는 자리이다.

2. 문화적 권리의 국내외 주요 정책들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1990년 7월 10일 발효)

전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c) 자기가 저작

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2)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바르셀로나, 2002)

전문

문화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권리 주체는 개인 또는 단체이며 권리 행사는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문화적 권리는 국가가 모든 행정 구성을 통해 보장한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인권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권리가 발생한다. 이는 인간 존엄성 및 여타 인권(예: 의사 표현, 정보, 결사 또는 양심 등의 자유에 대한 권리)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특이성과 창의성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문화적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5조에 명시되어 세계 인권 선언에 추가되었다. 국제규약은 1976년 발효되었으며 147개국에서 비준됐다.

문화적 권리는 누구든지 사회의 지적, 과학적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며, 지적, 과학적 및 예술적 산물(물질적 및 기타)을 즐기고 문화 상품을 보호하고 문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의미한다.

1. 시민의 문화적 권리

A. 문화 공간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

시민은 도시에서 아름다움, 창의력 및 사회성의 가치를 영위하며 도시를 통해 표현적 및 창의적 욕구를 충족할 권리를 갖는다.

B. 접근, 보호 및 차별 금지

모든 시민은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문화 프로젝트를 알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문화 콘텐츠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문화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 메시지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공공 문화 환경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도시 환경에 제시된 모든 문화, 특히 가장 취약한 문화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역사, 언어, 자연, 전통 및 창조적 연속성과 관련하여 도시에 깊은 뿌리를 두고 고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를 고려해 보호해야 한다.

시민은 여가 시간을 통해 적절한 문화적 기회를 누리고 일생 생활에 맞춰 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적절한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안전상의 위협 없이 도시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이동이 어려운 시민은 어려움 없이 문화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특정 문화 상품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C. 프로젝트 참여, 협력 및 제작

시민은 공동체가 공공 공간에서 조직한 모든 문화, 축제 또는 예술적 표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세계 문화의 표현 양식을 수용하고 도시 환경에서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도시의 문화생활에 대한 공개 토론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문화 단위로 간주되는 지역의 공동생활 공간(예: 동네, 거리)에 대한 제안서를 개발하고 공적 자원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E. 예술 교육, 소통 및 문화 지식

시민들은 특히 도시 모국어 및 결속력과 소통을 통해 발전해온 언어의 관점에서 거주 도시 및 다른 도시 공동체의 현재 및 과거를 이해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학교 교육을 시작한 후 교과 과정을 통해 예술 및 문화 교육을 받고 가까운 지역에서 보충 교육 시설을 이용하여 표현 및 창의력을 극대화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도시 환경에서 시기적절하게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 받고 공공 및 민간 통신 수단으로 이들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3) 문화기본법(2012)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4) 서울 시민문화권 선언(2016, 서울시)

전문

시민은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문화를 누리는 동시에 창조해 내는 존재입니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와 함께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적 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시민과 서울시는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고, 표현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서울시는 계층이나 연령, 지역, 성차,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시민과 서울시는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각종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이고 축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은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1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시민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예술의 향유에 있어서 계층, 연령, 지역, 성차, 인종,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2조 문화에 접근할 권리

시민은 출판, 공연, 영상, 시각예술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모든 콘텐츠와 정보, 이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 시설과 공간에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시민은 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 문화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

시민은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교육은 시민의 생애주기별로 세대와 연령에 적합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시민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문화향유자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가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문화에 관한 표현의 자유

시민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문화예술로 표현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시민은 다른 창작물을 비평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문화권 정책의 전개과정과 내용

2차 세계 대전 이후 문화권 논의들은 주로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문화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문화를 창작할 권리와 향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은 인권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

1970년대 말 인권의 개념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SCR)로 구분되었는데, 이 두 구분이 문화권의 정의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지시해준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기반 국가들이 주도한 조직이었고, 후자는 주로 사회주

의 국가들이 주도한 협약이었다. 문화권이란 용어는 1980년대 인권정책이 발전하면서 영역별 인권정책의 개발과 연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주로 각 국민-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유산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와 국민-국가 내 소수민족이나 종족들의 언어와 관습,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의 및 이론적 연구, 영역의 개발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유네스코가 주도한 문화권 연구와 활동은 크게 세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세계인권 선언이 나온 1948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제출된 1976년까지인데, 제 1기에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와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제 2기는 1976년부터 WTO 세계경제질서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로 주로 제3 세계국가들의 언어와 문화유산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제3기는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로 세계화과정에서 문화의 독점을 막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국제 문화단체들의 연대들을 가시화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유네스코에서 작성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초안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지켜내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2005년 10월에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문화권에 대한 연구와 연대작업들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각국의 민족문화의 존속을 위한 국제사회의 호소와 연대라는 실천영역과는 다르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지적인 특수성이 남아있다. 유네스코의 문화적 권리는 보편성과 국제성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보편성과 국제성이 각국의 민족문화의 다양성에 기반 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자원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인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국의 문화적 권리의 국지적 특수성은 보편적 문제로 환원되기 이전에 고유한 문화운동과 실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본주의 문화독점으로부터 저항하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는 운동은 유네스코의 연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여전히 국지적인 실천과제로 남는다. 가령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권리를 찾는 운동은 반드시 문화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대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가령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운동은 국제적인 지위에서는 민족문화의 종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권리싸움으로 국제 표준화될 수 있지만, 국지적인 상황에서는 소수자 영화의 종다양성을 지키는 문제, 영화노동시장의 문제, WTO 반세계화 민중운동과의 문제로 연계된다.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문화권의 국제담론은 국민-국가 간의 문화적 다양성, 혹은 종족문화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문화보존 운동의 차원에서는 의미있는 가치를 담고 있지만, 국민-국가를 넘어서 개인들의 문화자유를 실현하고 문화의 자원을 분배하고 문화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국지적인 실천 의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못하다. 유네스코와는 별도로 미국 중심의 문화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기구인 “세계문화연대기구”(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역시 문화권의 정의를 국민-국가 간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1998년 캐나다 퀘벡에서 첫걸음을 댄 “세계문화연대기구”는 세계 90여 개국 600여 문화단체가 소속된 연대기구로, 문화예술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거래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못한 소수 문화를 보존하여 세계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결성된 기구이다. 지난 5월 9일 스페인에서 열린 제 4차 세계문화연대기구 회의는 올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최종 조정 철자를 거쳤는데, 이 협약의 기본 초안은 문화적 표현과 국가 간 문화교류의 다양성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WTO나 FTA 무역협상에서 ‘문화적 예외’의 국제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문화연대 기구”가 주도하는 ‘협약’의 국제법적인 지위 확보는 문화의 종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불력을 형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국지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문화운동의 실제적인 실천과제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담론은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가 별 문화의 고유성을 활성화시키지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능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문화권은 집단, 종족, 국가의 문화적 주권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지만, 개인들의 다양한 문화권을 옹호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이는 문화운동으로서의 문화권 투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문화권의 국제담론과 연계할 때 뭔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화권에 대한 국제 학자들의 정의가 국지적인 실천에서 모두 적용되거나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권을 문화운동의 중요한 실천 아젠다로 설정한다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실천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권리는 보편 대 특수, 전지구화 대 국지화, 제1세계 대 제3세계의 이분법을 넘어서 개인들에게, 혹은 다중주체들에게 부여되어야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문화권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문화권 국가 실행계획’(NAP) 이래 ‘문화현장제정’(2004년), 그리고 문화기본법 제정(2013)을 통해서 발전해왔다. 그러한 한국에서 문화권은 여전히 중시되지 못하고 있고, 그 관점도 여전히 창작-생산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의 권리로 한정해서 보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환경권이나 생태권과 다르게 문화권은 특수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 문화를 직접 창작하고 생산하는 자들의 권리로 이해한다. 놀이 여가문화의 증가로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행복 추구권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청되지 않고 있다. 문화권은 문화적 발전을 요구할 수 있는 집단성의 권리이자, 보편성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욕망이기도 한 것이다 .

물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는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른바 생산자-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생비자(prosumer)’ 문화가 증가하고 개인들의 취미생활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메이커문화(maker culture)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 권리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로만 한정될 수 없다. 문화 권리에는 다양한 하위 권리들이 존재한다.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 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 시민들이 공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도시의 경관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문화예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문화와 예술 관련 다양한 권리들이 제기되고,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문화 권리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권의 영역과 실천사례

운동영역	문제설정	이론적 검토	구체적인 실천사례
표현의자유권 권리	문화생산자의 권리 문화소비자의 권리	만들 권리/불 권리 감수성의 정치	• 표현의 자유 침해법률개폐 •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 청소년 문화권 • 동성애 문화권 • 이주노동자문화권	소수자의 정의 소수문화의 검토	• 대안적 청소년문화 활동확대 • 동성애문화커뮤니티확대 • 이주노동자 문화적 활동보장
문화적 접근의 권리	• 퍼블릭 액세스운동 • 문화시설의 공공성 • 시청자주권운동	공공문화의 정의 퍼블릭 액세스운동	• 문화기반시설의 이용확대방안 • 시민들의 자치문화 활성화
문화공공서비스의 권리	• 문화비용의 증가 • 주 5일 근무제실시	공공문화서비스의 개념	• 문화이용료 인하 운동 • 문화소외자의 문화향수권 확대
문화예술교육의 권리	• 평생교육권 • 문화재생산교육	문화교육의 이념과 방법	•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공간 환경의 권리	도시 생태권	• 문화, 도시, 생태에 대한 이론학습	• 난개발반대 문화행동 • 보행권 확대 • 도시생태공간의 확대

문화 권리는 문화에 대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한 문화적 권리를 동시에 내포한다. 이는 문화권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들은 전문 창작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 과정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도 해당된다. 지난 보수정부 10년 동안 개인들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규제 장치들을 개발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법으

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에 대한 문화 권리의 중대한 침해이다. 인터넷 실명제 역시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적 장치이고,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극적인 광고 간판이나 심야의 네온사인 역시 개인들의 시각적인 문화경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권리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적용이야말로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는 문화의 사회 가치의 확산과 연관되어 있다.

4.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제시한 문화적 권리들

의제1. 개인의 문화적 권리 확대

1) 기본기조

“문화는 삶의 양식, 행복하고 즐거운 문화사회를 만든다”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의 권리를 사회의제로 확산하고 노동 중심에서 여가 중심 사회로 전환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즐기고, 문화향유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
- 개인의 문화 권리를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연계하여 권리 영역을 확대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문화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 환경의 기틀을 다지는 문화정책으로 전환 요구

2) 대표과제

1. 문화권 확산
2.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
3.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4.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3) 추진과제들

①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생활문화공간을 재편해 전 국민적 문화향유 확대

▶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기존 문화시설에서 기능을 융합해 생활문화 매개 공간 역할을 증진해야 함

▶ 지역에 산재한 문화센터와 생활문화의 기능 중복을 강화 차원으로 유도하고, 다른 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이것이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동일한 시점에서 작동되도록 유도해야 함

▶ 각 시설이 다양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활동을 보장받되 생활문화 차원의 인증 제도를 도입해 중앙정부광역지원체계-기초실천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기본 전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함.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부양할 필요가 있음

▶ 전 국민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체계를 조성해야 함

②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문화 인프라-창작자-이용자를 연결하는 문화향유 생태기반 구축

▶ ‘국민 누구나 1시간 거리 안에서 균질적인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문화인프라-창작자-이용자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앱이나 웹서비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

▶ 문화향유 네트워크 설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창작자와 이용자들의 자율성에 기반하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 ▶ (아동) 어려서부터 문화에 친숙해지도록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첫걸음(New Step) 문화카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문화카드 제공
- ▶ (청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국내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할인혜택이 포함된 통합관광교통카드 도입 추진 - 청년층 대상 시범 도입, 다른 계층 확대 도입 추진
- ▶ (노인) 저소득층 고령자(80세 이상 등)가 활용하도록 당사자는 물론 동행자에게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추가 제공 추진
- ▶ (중장년) 또래와 교류하기 등 관심사와 신체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 조성 - 실버여행학교(노년): 평생교육기관이나 지역문화센터와 연계, 여행과 평생교육을 결합
- ▶ (장애인)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설립, 일반 영화관 내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 시스템 구축 -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18년 29개 → '30년 220개/누적), 시군구 단위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확대('18년 15개소 → '30년 50개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8년 577명 → '30년 3,000명)
- ▶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 친화형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확대 - 문화놀이터: 낡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존 놀이터에 문화를 입혀 가족 친화형 놀이터로 재조성, 낙후 지역 중심으로 조성 시작('30년 100개)
- ▶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주거 인접 시설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인문 프로그램 지원 - 인문강연, 인문융합 프로그램, 인문동아리 운영 등 지원
-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주도형 '우리 동네 특화 도서관' 도입 -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

- ▶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 시설 조성, 기존 시설 활용 확대 - 거주지 인근 간이 체육시설 조성,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교육부 협의), 생활체육지도자 시군구 단위 확대 배치 등

③ 지역문화시설의 관객 참여 플랜 수립

- ▶ 지역단위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관객 참여 및 접근성 완화 계획 수립(‘문화시설 문턱 없애기’, ‘관객참여 플랜’ 등)
- ▶ 기존의 문화시설에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메이커스 문화’, ‘문화공작소’ 활동 지원 ▶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및 재생에 국가 지원 확대
- ▶ 공급 지표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지역문화지수’에 수요 부문을 결합하여 ‘지역문화균형지수’로 확장·모델 개발 - 공급(시설, 인력, 기관, 프로그램 등), 수요(문화향유 수준, 만족도 등)
- ▶ 지역 간 문화 여건을 진단하고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맞춤형 지원 등 정책을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2년 단위 조사로 정례화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

5. 문화적 권리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비전에 대한 제안들

1) 도서관의 문화적 접근권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작은 도서관 건립의 확대
- 다양한 정보접근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기능의 확대
- 주제와 토픽이 고려된 특성화 도서관의 건립
-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위한 안전시설의 구축
- 대출과 반납의 편리함, 주말 휴일 도서관 이용을 위한 대안 마련

2) 도서관의 문화적 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공간 구성

- 양질의 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확충
- 책 중심의 자료에서 시각, 영상, 사운드로 확대하는 다원적 콘텐츠 서비스
- 쉼과 휴식이 있는 라운지
- 돌봄과 육아를 고려한 휴식 공간들의 배려
- 문명과 생태 공간의 조화를 위한 공간디자인

3) 도서관의 문화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열린 제도화

- 도서관 장서구입과 시청각 자료 구입에 시민들의 참여 확대
- 다문화, 다언어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 돌봄 가족들의 도서관 이용을 위한 활성화 방안 고려
- 문화적 활동(cultural activity)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디자인
- 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제도화

4) 도서관의 문화적 표현권 확산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 강화

- 도서관 내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 다원적 매체와 예술표현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 개설
- 문화예술 체험공간의 동네 허브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 문화적 프리젠테이션의 다양한 기회제공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토론
1

사람에 대한 포용성

‘사람에 대한 포용성’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생각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사람에 대한 포용성’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생각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책자를 다 읽었습니다. 함께 배송되어온 포스터도 입구에 붙이고, 리플렛도 소중히 책상위에 두었습니다. 1, 2차 종합계획 때는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눈길을 잡아 끈 비전과 3대 핵심가치가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해오던 일들의 철학과 방향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늘 안타까웠고, 판단과 평가의 근거가 양적인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에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과 다를 거라는 기대를 품게 된 것은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비전, 그리고 우리가 해오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오던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을 3대 핵심가치로 명료하게 드러내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급격한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 늘어나는 자살률 등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 삶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비전과 핵심가치를 도서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각각의 영역에서, 또 보다 더 넓은 관계망 안에서 모색하고 실행해야할 시점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제게 주어진 토론 주제인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를 넘어서는 ‘사람에 대한 포용성’

대부분 ‘포용성’이라고 하면 소외계층, 장애, 빈곤 등을 떠올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업’과 ‘제공’의 차원에 머무를 때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2015년에 성북구에서 1,000만 건이 넘는 이용자데이터를 분석한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부각된 내용이 “경제력과 학력이 높을수록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뛰어넘어 도서관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분석결과였습니다. 이에 도서관에서는 시장 상인, 이마트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문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체감한 것은 의미 있었지만, 매주 사서들이 책을 배달하는 업무는 1년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진행한 도서관마을네트워크는 이제 3년째를 맞이합니다. 도서관별로 복지사, 통장, 상인, 교사, 예술인, 독서회원 등 마을의 기관 및 단체,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모임은 마을의 현안을 다루는 도서관의 정보활동이자 마을의 자원을 서로 연결하여 마을의 구석구석에까지 활동이 미치는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 복지관의 NEET 청소년들이 마을 분식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70넘은 어르신들이 예술인들과 만나 자신들의 삶을 도서관에서 낭독을 통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포용성은 ‘누구나’라는 단어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와 존중의 인식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자 ‘대상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만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자원과 서로 연결하여 ‘협업을 통해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핵심가치

앞에서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나름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사람에 대한 포용성’은 어떤 배경과 의미를 갖는지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이해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포용성’뿐 아니라 비전과 3대 핵심가치 모두에 해당됩니다. 2023년까지 도서관 전 분야가 함께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이자 활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책자에 그 배경과 의미가 수록되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또 하나의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막연한 이해는 정책과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비전과 핵심가치에 대한 해석과 공유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 구현되는 실행과정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국가, 광역, 기초, 단위도서관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매년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 그래서 다음해에는 어떤 정책과 계획들이 세워지는지 그 일련의 과정과 맥락을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 구현되는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과정으로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그 핵심은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개방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두 번의 대규모 설명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몇 명의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기초로 정책과 계획을 논의하는 국가-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촘촘한 논의구조와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사고와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포용성’은 국가-광역-기초로 이어지는 도서관 간에도 구현되어야 하는 핵심가치입니다.

‘사람에 대한 포용성’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례 발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과 함께 이를 독려하고 확대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변화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3대 핵심가치와 전략방향 등에 따라 도서관평가지시스템이 달라져야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및 도서관건립지원시스템 또한 재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가치를 잘 구현해낸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공유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서인력, 개인학습공간 등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가로막는 각종 문제들을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개선 과정들이 현장과 소통하며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에 대한 포용성’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을 이루는 핵심가치일 뿐 아니라, 실행과정의 전반에 걸쳐 구현되어야 할 가치이자, 현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들이 연결되어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개념을 모두 이해하고 정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 더해지고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해석은 보다 구체화되고 이해의 폭도 커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해 있는 문제, 삶의 문제로부터 출발해 사람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일상으로 문화로 펼쳐내고 확산시켜내는데 도서관이 큰 몫을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The Public’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서관에서 노숙인이 위엄을 갖게 돼요. 공원이거나 노숙인 쉼터가 아니라”.

단지 ‘누구나’라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넘어 노숙인도 ‘위엄’을 갖게 하는 도서관의 문화, 그것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3대 핵심가치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 지닌 힘이 아닐까 합니다.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토론
2

공간의 혁신성

도서관의 미래지향점과 방향성

최준혁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도서관의 미래지향점과 방향성

최준혁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전략과 과제 추진을 위한 위계와 개념

도서관의 정책과 전략은 많은 시간을 거쳐 수정되고 발전적인 양상으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진보되어 왔습니다. 그간 많은 전략과 과제가 진행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작금의 도서관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선진의 사례를 통한 도서관 운영과 공간 디자인의 변화도 나타나고 근래에 개관된 도서관들은 과히 해외의 도서관과 비견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진보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전략과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오늘 이 포럼의 자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가움도 가져봅니다.

도서관은 현 시대의 지식문화의 보고이자 동시에 현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물리적 현시의 총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 되고 있는 다원성과 도서관의 운영, 공간 디자인, 정책의 흐름과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지금의 혁신적인 도서관 건립과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탄생되는 도서관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성공적인 완결을 위한 목표와 지향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한번 뒤돌아보고, 되돌아보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이라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가치를 논의하며, 4대 전략과 13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 자체로서도 이미 그 의미가 크고 더불어 지금까지의 도서관이 가지지 못하였던 새로운 포맷의 도서관들이 시민들에게 반가운 선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만 있다면 보다 큰 산을 바라보지 못할까 우려의 마음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간에 설립된 지역대표도서관, 중앙도서관, 지역의 각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있는 시립 혹은 구립 도서관 등이 과연 어떠한 목표와 설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며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시설로서 그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도서관들이 명확한 건립의 목적과 위계를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설립되고 있는 도서관들이 서로 연계되어 통합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먼저 보고, 도서관의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규모 및 지역에 설치된 도서관 수,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수, 지역민들의 요구와 수용 범위에 따라서, 도서관이 보존하는 도서의 유형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부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도서관 건립은 지금까지의 양상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이 건립되어지거나 리모델링으로 재개관 되어지는 도서관들의 양적인 부분에서도 격동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의 시대에 도서관이 도서관마다의 위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도서관 수의 양산이 아닌 향후 지어질 도서관까지 포함한 도서관 정책 수립과 역할 부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서관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도서를 다루어야 하고, 어떤 도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역할 부여,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 도서관의 미래지향점 구체화를 위한 공간 계획 방향성

도서관은 현세대와 동시에 미래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막연하게 선진 도서관의 사례만을 바라보고 이를 동경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도서관의 현실은 무엇이고 현 시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서관 건립과 공간 계획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도서관이 가지는 지역적인 성격과 지역민들의 요구, 도서관의 지향점이 모두 다르고 동시에 도서관 건립의 추진 절차와 과정 또한 지자체 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공간 계획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되어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적인 측면을 반영한 공간 계획, 도서관의 정책을 잘 수용하여 시대의 흐름에 대응 가능한 공간 계획, 미래 세대의 지향점을 미리 읽고 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 계획 등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도서관 정책과 건립의 전략과 방향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미래 지향점을 도출하기 위한 도서관 공간 계획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으나, 다음의 4가지 내용에 대한 논의는 고민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서관 공간 계획의 시대적 흐름과 미래 지식산업의 동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이커스페이스(창의력 배양과 창조적,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수용,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 story doing을 위한 공간 구축, 사용자 중심의 공간 구성, 다양성 있는 도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과 가구 계획, 모든 계층의 사용자가 편리성과 편안함에 그 기반을 두고 이용 가능한 공간 계획 등이 핵심적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서관 정책을 통한 도서관 통합서비스 실현 등의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도서관서비스 수요 증가와 관련된 미래도서관의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여 디지털 중심의 서비스와 이에 대응 가능

한 공간 계획입니다.

셋째, 창의성과 상상력의 지식놀이터 공공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위한 공간 계획의 방향성 모색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창의력과 학습 효과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요구되고 동시에 digital lab, creative lab, maker space lab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아날로그 중심의 도서관에서 보다 진보된 형식의 공간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체계 중심의 도서 접근성이 향상된 포맷의 공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가 중심의 공간 배치에서 서가와 열람 공간이 공존하는 방식의, 보다 브라우징이 강화된 형식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현 시대 보다는 미래를 향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도서관 건립과 공간 계획이 절실한 기회의 시기입니다.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토론
3

정보의 민주성

포용사회 실천과제로서 도서관의 민주성

정현태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장

포용사회 실천과제로서 도서관의 민주성

정현태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장

1. 민주주의 척도로서 도서관

- 도서관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문화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다.
 -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도서관은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국민이 필요한 지식자원을 제공하며,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서비스하는 것을 활동원리로 하고 있다. 도서관활동은 민주주의 이념을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공공서비스이다.
 - 도서관은 사회의 모든 지적 표현물을 교류하는 공공의 광장으로서, 공동체 지식자원의 공유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또 사회 모든 구성원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이용과 자기개발, 교양교육, 여가와 친교 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사회 민주주의 가치를 진작하는 시민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기능한다.
- 도서관은 근대화 이래 공동체 민주주의 기반시설로서, 그 이념과 철학의 기저에는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과 사회적 지식을 함께 나누자는 호혜적 공생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 지역사회의 세금을 동력으로 하는 공공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의 운영원리는 납세자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이용과 접근의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독학교육을 지원하며, 교양과 윤리를 제고하려는 사회교육의 장이 되어 왔다.
- 도서관서비스는 시민들의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회를 성숙시키고 통합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미국도서관협회에서 1999년 발표한 “도서관 : 미국의 가치” 선언문에서는 미국 민주주의 문화를 진흥하는 초석으로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의미를 아주 정확히 천명하고 있다.

도서관 : 미국의 가치(1999.2.3., ALA)

미국의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초석이다. 미국 도서관에 있어서 도서, 사상, 자원, 정보 등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지역사회 교육, 고용, 오락, 자치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 도서관은 가능한 폭넓은 범위의 관점, 의견 및 사상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사회를 기리고 보전하며, 이에 따라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얻고, 글을 읽고, 교육을 받고, 문화적 풍요를 누리며 평생학습자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 미국의 도서관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세상에서 도서관은 우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헤아리고 개인과 그들의 신념을 존중하며, 모든 개인을 진정으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지켜 준다.

- 유네스코와 국제도서관연맹에서 발표한 「공공도서관선언」에서도 공공도서관의 활동원리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도서관의 역할로서 밝히고 있다.

공공도서관선언문 (1994, UNESCO, IFLA)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이 지식, 생각, 문화, 정보에 무료로,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특히 시민 사이에 만족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렸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나이, 인종, 성, 종교, 국적, 언어, 신분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된다....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는 이데올로기,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검열, 상업적 압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 이용자의 나이, 인종, 성, 종교, 국적, 언어, 신분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공공시설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개정하여 발표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서도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그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서관인 윤리선언 (2019.02.28.,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토틈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

- 도서관은 사회의 모든 지적 표현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식과 사상의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의 광장으로서 도서관활동을 책임지는 사서들은 공동체 출판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을 수호하는 사회적 역할로서 그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 도서관은 공동체 지식유통의 공공 인프라로서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학력, 지위와 신념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소장자원의 접근과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공동체 지식자원의 민주적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윤리로 삼고 있다.

2.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 사회발전의 잠재력은 어느 사회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지식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유하는가에 좌우된다.
 - 지식정보사회의 진입과 함께 창발성의 원천으로서 지식자원에 대한 상업적 유통이 강화되고, 지식정보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빈자와 부자의 계층 간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최근 도서관서비스가 시장질서의 한편으로 편입되어 신경제주의 논리에 휩쓸리며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익적 이념의 전통성이 심각히 위협을 받고 있다. 공공적 접근을 보장하는 정보복지의 보루로서 도서관이 갖는 시대적 사명이 퇴색해 간다는 위기의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 신경제 질서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복지에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 지식자원의 상업적 부가가치에 집착하는 저작권자들에 대응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공익적 원천성을 적극 주장해 나가고, 사회발전을 위해 도서관서비스가 갖는 ‘공정사용(Fair Use)’의 당위 논리를 적극 대변해야 한다.
 -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는 지식자원의 확대를 위해서 “자유이용

허락표시(A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제도와 “오픈액세스(Open Access) 운동” 등 시장으로 잠식되어가는 사회적 공공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서비스로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난 세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특히 디지털 정보유통이 확산되고 인터넷기업들의 시장지배가 두드러지며, 도서관의 공공적 역할로서 가장 비중 높은 서비스인 대출의 감소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 도서관서비스의 새로운 수요로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여가와 취미 활동, 메이커스페이스 창의성 교육, 동호회와 동아리 활동의 커뮤니티서비스 등 다양한 친교와 참여를 매개하는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서 그 역할과 의미가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 도서관서비스는 이제 단순 정보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공동체가 당면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증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어야 할 때이다.
 - 지역사회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적 매개역할에서 중요한 임무를 찾아야 할 것이다.
- 도서관서비스는 자원과 기술 및 프로그램 등이 일반화 혹은 균질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의 거점공간으로서 다양성 및 지역성(locality)이 취약해지는 대신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획일화되고 표준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다만 중요한 것은 도서관서비스의 가능한 자원과 기술적 방식이 단일화되더라도, 서비스의 기획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초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에 더욱 더 큰 관심이 필요하게 되었다.

- 산업화 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소득 3만불 시대 도서관의 역할은 시대적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정책적 사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 공공서비스로서 도서관은 대상 계층 모두를 포용하는 개방성에 기초를 두되, 상대적으로 시장소비에서 소외되는 정보취약계층 및 문화취약계층의 공공적 접근을 보장하는 복지적 배려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소외계층의 정보접근 권리 및 문화향유 권리에 대한 균형적 책무는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정책적 추세로 예상된다.
 - 3만불 시대 도서관서비스는 공공적 책무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권과 학습권, 향유권 등을 보장하는 복지적 성격을 강화하여 정보복지 및 도서관복지의 실현을 주요한 책무로 내세워 공공서비스로서 사회적 입지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특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도서관의 민주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다양한 실천과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1-1-2 소통 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 독서공동체,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3-1-1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 정보불평등 지수 측정을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방안 모색

3-1-2 정보 및 매체이용교육 강화

- 정보 불평등 계층정보 및 매체활용 교육 강화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 특수환경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강화
- 농산어촌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 노인대상 서비스 강화
- 소외계층 서비스 강화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 국내 이주민(외국인 포함)을 위한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4-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 미래를 위한 도서관선언

3. 도서관의 민주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

- 도서관은 지식과 사상을 나누는 공공의 광장으로서, 편견과 검열을 배제하는 공정한 매개자로서 도서관활동의 민주성에 대한 사회적 계몽을 강화해 나가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공동체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사회통합기제로서 도서관활동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도서관현장」 혹은 「도서관인 윤리선언」 등 대사회적 선언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도서관활동의 사회적 사명과 명분에 대해 폭넓은 공감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사서들(도서관인들) 스스로도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전문직이라는 자긍심을 세우고 도서관인의 사명과 철학을 다지는 윤리교육이 시급하다.
 - 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윤리선언」에 대한 대사회적 홍보활동과 도서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교육이 제도권 교과과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 도서관 활동이 갖는 민주주의 원리를 사회적 공유가치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나아가 도서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동의는 도서관의 미래 생존에 긴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도서관 활동의 기저 원리와 그 철학적 의미에 대해 사회적 이해를 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계몽과 홍보활동이 긴요한 이유이다.
 - 특히 도서관서비스는 경제적 편익에 못지않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수호하는 사회문화적 역할로서 그 의미를 부각시켜야 한다.
 -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역할은 지식정보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이면에서 발휘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의 실천기제로서 홍보되어야 하며, 도서관활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고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MEMO 





MEMO 





MEMO 

